



5월 3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5.14	5.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66.36	1,241.81	↑ 1.98	↑ 14.72	785.17 '20/07/27	1,269.09 '21/05/12
인니	자카르타종합	5,938.35	5,928.31	↑ 0.17	↓ -0.68	4,507.61 '20/05/15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8,732.55	49,206.47	↓ -0.96	↑ 2.05	30,028.98 '20/05/18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90.38	3,418.87	↑ 2.09	↑ 0.50	2,813.77 '20/05/22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93.87	2,239.68	↑ 2.42	↓ -1.52	1,750.82 '20/05/25	2,468.66 '21/02/19
홍콩	H	10,404.95	10,699.00	↓ -2.75	↓ -3.11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027.57	28,610.65	↓ -2.04	↑ 2.92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53.32	3,197.20	↓ -1.37	↑ 9.74	1,924.96 '20/05/14	3,249.30 '21/05/10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5.14	5.7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0	2.42	↓ -1.70	↓ -18.00	2.20 '21/01/15	3.60 '20/05/14
인도네시아	6.43	6.41	↑ 2.00	↑ 54.50	5.89 '20/12/30	7.87 '20/05/14
인도	5.99	6.02	↓ -2.90	↑ 12.10	5.75 '20/05/28	6.25 '21/03/10
중국	3.14	3.15	↓ -1.60	↓ -1.00	2.58 '20/05/22	3.36 '20/11/19
한국	2.16	2.12	↑ 3.50	↑ 43.30	1.28 '20/07/30	2.16 '21/03/18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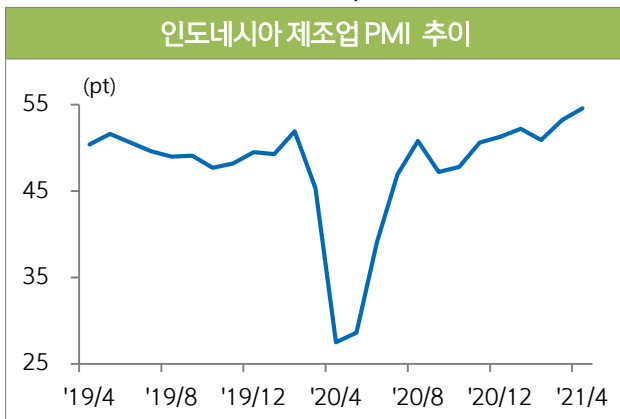
구분	5.14	5.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40.00	23,065.00	↓ -0.11	↓ -0.25	22,970.00 '21/02/08	23,363.00 '20/05/14
달러-루피아 (IDR)	14,198.00	14,285.00	↓ -0.61	↑ 1.05	13,878.00 '20/06/05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3.29	73.51	↓ -0.30	↑ 0.31	72.33 '21/02/24	76.21 '20/06/16
달러-위안 (CNY)	6.44	6.43	↑ 0.06	↓ -1.38	6.42 '21/05/10	7.17 '20/05/27
달러-원 (KRW)	1,128.54	1,121.32	↑ 0.64	↑ 3.87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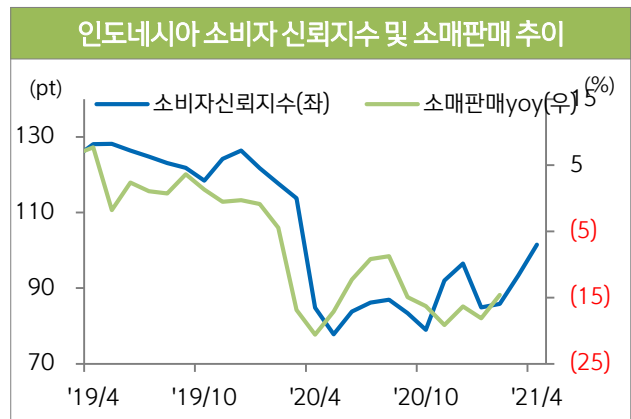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4월 제조업 PMI와 소비자 기대지수 개선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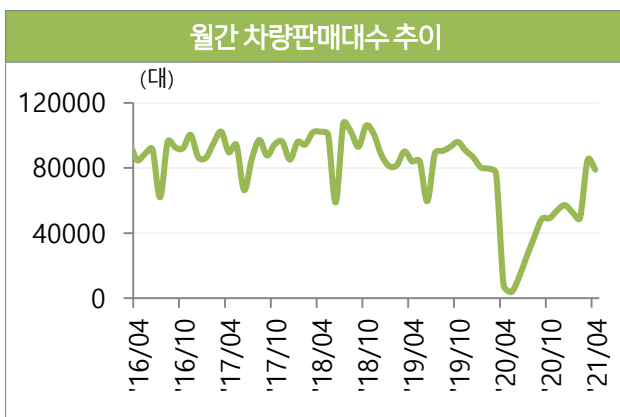
- ▶ 4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54.6pt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20년 11월 이후로 6개월 연속 기준치인 50pt를 상회하면서 제조업 관련 투자 심리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4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가 상승한 것은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생산의 증가를 이끌고, 신규 수출 주문도 17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일 5천명 대에서 다시 증가하지 않으면서 우려를 낮췄고 라마단-르바란 기간의 수요 증가와 조업 중단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주문 및 생산을 실시한 것이 PMI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됨. 5월 제조업 PMI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PMI와 조업 중단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한편, 인도네시아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기준치인 100pt를 상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방위적으로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감염에 대한 우려와 실직 등의 문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제한되고, 백신 누적 접종자수도 2,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심리가 개선되었음. 이에 따라 소매판매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이에 맞춰 인도네시아 정부도 차량 구입에 부과되는 사치세 등을 낮추면서 차량판매도 회복되는 모습임.
- ▶ 제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2분기부터는 인도 2차 코로나 변이의 충격만 없다면, GDP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전망. 금융시장도 안정적 흐름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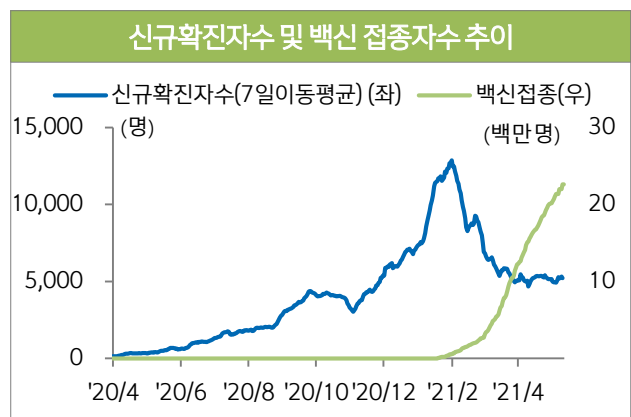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주요 뉴스





## 3월 소매판매 6.1% 증가



### ❖ 요약 및 시사점

라마단-르바란 기간을 앞두고 소매판매가 개선되면서 3월에는 전월대비 6.1%의 소매 판매지수 증가가 나타났음. 중앙은행은 이러한 소매판매 개선이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기적인 수급 차질로 발생하고 있는 물가 압력이 향후 3~6개월 후에 대해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사 결과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음

- 중앙은행의 소매판매 조사 결과 3월의 월간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21년 3월의 소매판매 지수(IPR)은 전월대비 6.1% 증가하여서 2월의 -2.7%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중앙은행은 발표하였음.
- 응답자들에 따르면, 소매판매의 증가는 라마단을 앞두고 공공 수요가 증가하였고, 계절성과 날씨가 양호하였던 결과였다고 하였음.
- 소매판매는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류 관련 소매업종 부문으로 2월에는 -8.7%의 전월대비 증가율을 보였었지만, 3월에는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뒤이어 문화 레크레이션 관련 판매 부문이 -8.6%에서 2.5%로 개선되었고, 차량용 연료 부문은 전월 -2%에서 3월 8.1%로 증가하였음.
- 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소매판매의 증가흐름이 4월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라마단 기간에 증가하는 구매와, 긍정적인 환경 조건, 그리고 할인 프로그램 등의 효과로 4월에 전월대비 11.4%의 소매 판매 신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음. 4월에는 음식료, 담배, ICT기기 등등의 판매가 신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
- 소매판매 가격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향후 3~6개월 사이에(올해 6~9월)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하였음. 향후 3개월에 대한 일반 물가 전망지수(IEH) 기준으로 상품 재고의 충족과 상품의 원만한 물류를 통해서 물가 압력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156.4pt에서 141.4pt로 물가지수 전망치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음. 향후 6개월에 대한 물가 지수 전망 또한 상품 물류의 개선과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141.7pt에서 134.9pt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음.



## 인니 상공회의소 : 국가 경제 성장이 정상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1분기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허용한 개별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상공회의소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임으로써 경제활동이 2분기부터 더욱 빠르게 개선되면서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 국가 경제 성장이 + 성장을 향해서 정상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발표하였음. 2021년 1분기의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0.74%였지만, 코로나19의 와중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마이너스 성장폭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였음.
-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인데, ICT 부문에서는 8.72%,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5.49%, 보건서비스 부문에서 3.64%의 성장이 나타났음.
-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분기의 경제 성장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인도네시아 정부 및 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전년대비 5~7% 이상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그러면서 5월달에는 상공회의소 직원 및 가족들의 백신 접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보건부의 2021년 제10호 장관령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별적인 기관들의 독립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음. 상공회의소는 중국산 시노팜과, 미국산 모더나 백신 등을 개별적으로 조달하여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임. 2021년 4월 30일에 시노팜으로부터 48만 2,400 도즈 규모의 백신이 항공편으로 도입된 바 있음.
- 상공회의소에서는 독립적인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접종 진행을 빠르게 하면서, 사회활동이 재개되고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건 통제 지침을 완화하면서도 사회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경제조정 장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7%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 요약 및 시사점

경제 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2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입 부문 개선, 민간 소비 심리의 반등 등에 힘입어서 7%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경제 조정 장관은 2분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실현이 빨라지고, 소비자 신뢰 지수의 상향이 이뤄지면서 7%에 달하는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그는 성장세가 +를 기록하고 있으며 7% 성장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Antara New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표했음.
-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성장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고, 고정자본투자(GFSF)와 정부 지출 부문은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팜오일, 고무, 니켈, 구리, 및 석탄 등이 원자재의 가격 상승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 국면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음. 장관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 지역에서의 경제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음.
- 경제의 핵심지역인 수마트라와 자바 지역의 경제 성장세는 각각 0.86%, 0.83% 수준으로 + 성자를 보여주었다고 장관은 말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동부의 술라웨시나 파푸아 주의 경우에는 각각 1.2%, 8.97%의 높은 성장율을 시연하였다고 하였음.
- 지난해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견되어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도 공공 보건 및 경제에 대대적인 타격을 입었었음. 조코위 대통령은 보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브레이크(통제 조치)와 가속 페달(경제 정상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전기 차량이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국가 에너지 위원회는 전기차량의 보급을 에너지 믹스 관련 정책의 하나로 염두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가 정책 목표에 맞춰 전기차량의 빠른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음

- 전기차량의 보급 확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석 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가 에너지 위원회(DEN)가 발표하였음.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 2천대의 전기차량, 600대의 전기 버스의 보급이 진행된다면, 매년 235만 배럴 가량의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었음.
- 국가 에너지 위원회는 지난 5/11에 교통부 장관 및 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음. 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은 2명의 학계 인사, 2명의 산업계인사, 2명이 소비자 관련 단체 및 1명의 기술 관련 인력, 1명의 환경 관련 인력 등 8명의 이해관계자들로 이뤄져 있음.
- 산업계에서는 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육상 교통에서의 전기차량 대체를 통해서 가장 크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서 교통부가 전기차량의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고 하였음. 대중들이 전기차량의 이용에 매력을 느껴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 주차, 톨게이트비 면제, 현금 환급 등 재정, 비재정적인 지원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리고 전기차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차량 충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정부는 2025년까지 88,045개의 충전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5개 지역에 57개 충전소를 보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교통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1~2025년 국가 전략 산업 계획에 대해서도 전기차량과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현재 에너지 믹스와 관련하여 에너지 자립성, 국가 안보, 에너지 도입 안정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부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 중국과 프리포트 구리 제련소 관련 논의 지속 중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광물 수출국에서 광물 제련 제품의 수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련소 관련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전기차 관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외국 기업들의 합작, 참여 제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인도네시아는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 EV 관련 핵심 광물의 제련 투자를 MIND ID를 통해 진행중임

-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광산 지주회사인 MIND ID는 중국의 칭산철강과 28억 달러 규모의 제2 구리 제련소를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MIND ID는 미국의 광산 기업인 Freeport-McMoRan사가 운영하던 인도네시아 국내의 광산 관련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Freeport Indonesia가 칭산철강과 함께 구리 제련소를 추가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전체 자본을 다 부담하고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할 최종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하였음.
- MIND ID의 대표이사는 칭산철강이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3월말의 상호간 협상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였음. 기한이 종료되어서 끝난 상태가 아니라 시기, 금액, 투자의 성격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초기에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율 중이라는 것임
- Reuter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기차 생산자들과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채굴 및 제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MIND ID의 대표이사는 2023년 12월말까지 제련소 프로젝트를 완료시키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는 의사결정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는 만약 칭산철강과의 협상이 결렬로 끝난다면, Freeport Indonesia가 직접 당초 계획대로 동부 자바 지역에 있는 자바 종합 산업항만 단지에 두번째 제련소를 짓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이곳은 Freeport Indonesia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melting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제련소와 가까운 곳임. Smelting의 최대 지분은 일본의 Mitsubishi Materials가 보유하고 있음.
- 칭산철강이 최초 제안을 한 이후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왔음. MIND ID에서는 신규 동부 자바 제련소에 대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작업과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였음. 그러나 칭산철강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부 지역인 파푸아 지역의 그라스버그 광산 근처에 제련소를 짓는 방향을 제안해 와서 협상을 진행해 온 것임.

(뒷면 계속)

- ▶ 새로운 제련소 규모는 연산 170만 톤의 구리 컨센트레이트를 제련할 수 있는 규모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재 Smelting이 보유하고 있는 30만~130만 톤 가량의 제련 규모를 크게 늘리게 해주는 것으로 총 투자 소요 계획은 2.5억 달러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음.
-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단순 광업 생산물 수출 국가에서 제련을 통해 금속 산업의 강국으로 키워내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소 건설 계획의 이행에 맞춰서만 6개월 단위로 광물의 수출과 관련된 라이선스 갱신을 재승인하고 있음.
- ▶ 이와 별도로, 투자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에 China Enfi Engineering과 서부 파푸아 지역 Fakfak에 세번째 구리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투자조정위원회는 세번째 구리 제련소는 연산 최소 80만톤 규모의 구리 컨센트레이트의 제련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 ▶ 이러한 제련소 건설 확대에 맞춰서 Freeport Indonesia에 구리 컨센트레이트의 생산량을 2041년까지 연간 300만 톤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허가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 구리 이외에도 MIND ID는 니켈에 대한 제련 용량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관련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MIND ID는 국영 니켈 생산 기업 Aneka Tambang(AnTam)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광산 대기업 Vale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Vale Indonesia의 지분 20%를 인수하였음.
- ▶ MIND ID와 Antam은 다시 국영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인 Indonesia Battery Corp.(IBC)의 설립에도 참여하였음. IBC는 중국의 CATL, 대한민국 LG화학 등 세계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과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 뿐만 아니라 MIND ID와 자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29조 루피아(20.5억 달러) 규모의 광물 하류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CAPEX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8억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소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 알루미늄 관련 사업 투자 진행 자본 조달을 위해서 MIND ID는 알루미늄 자회사 Indonesia Asahan Aluminum(Inalum)을 내년에 상장시키기로 준비하고 있음.